대학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컬 대학,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전주대는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입지적으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지식기반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심 특성화정책으로 환황해권시대와 새만금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대체의학분야, 산학협력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사업과 산업의 발전을 함께 하여 민 · 관 · 산 · 학 · 연이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전주대는 기독교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 설립하여 전문인양성을 위한 실용교육,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어학 및 문화교육, 민족과 인류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육, 열린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교육의 목표로 1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교육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전주대는 소비자 중심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스타트(Star T)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학사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누리(NURI)사업 대형과제 선정,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전북 유일 선정 등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학발전을 한층 앞당기고 있다.

2003년 이남식 총장 취임 이후 대학의 경영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영합리화는 물론, 브랜드 가치의 제고, 캠퍼스 마스터플랜, 전 교사 리모델링, 스타센터, 스타타워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학생중심의 서비스행정 강화, 통합교양교육 실시, 지역혁신지원단 조직 등 지역혁신사업 참여, 누리(NURI)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 진행, 글로벌네트워크 확립 등 다양한 학사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교육의 질로 승부하여 교육경쟁력을 기르고 있다.

[전주대의 혁신사례 내역]

■ 대학혁신

-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 전통문화콘텐츠 X-edu 사업
- 지방대학육성사업 : EM사업
- StarT Program
- StarTrack Program
- CA제도운영
- UI System 개선
- 대중국특성화전략
- 진로탐색 교과목
- 통합교양교육과정구축
- Catch the World 해외탐방
- Superstar 특강

■ 지역혁신

- JJ문화경영아카데미
- 시민감사축제
- 지역혁신지원단
- 전주공예품전시관위탁운영
-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
- 전주세계난(蘭)산업박람회
- 학교기업궁중약고추장운영

■ 산학협력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StarNet Project
- 국제한지산업박람회
- 국제협력사업구축
- 창업보육센터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운영, 몽골 국제산학교류사업, 국제인력교류사업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2007년도 취업률 84.6%로 껑충 - 교육정보공시제 대비

지난 5월 2일 2006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취업률이 전국 취업률 평균치 67%를 넘어 84.6%나 되었다. 이는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낳았다. 특히,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실시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되어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예·결산내역 등이 공개되므로 취업률부터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 해보다 정규직 비율도 높아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06년 경상대학 취업캠프]

스타트 프로그램(StarT Program, Superstar Training Program)이란?

전주대는 "The Place for Superstar"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StarT Program은 학생들의 도전정신(challenge), 능력개발(competence), 공동체의식(community)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내 · 외활동의 참여 정도 및 성과에 따라 포인트(Point)를 부여하여 총장인증서, 국내외연수 기회 제공,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한다.

스타트 프로그램(StarT Program)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은 학생들에게 스타트 프로그램(StarT Program)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의 성과를 각 활동별로 정해진 포인트를 부여하고, 취득한 포인트는 학교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적립하여 취득총점에 따라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포인트는 활동 결과에 따라 인증포인트(certification point : CP)와 장학포인트(scholarship point : SP)로 구분되며, 5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총장인증서 및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 **트랙 시스템(Track system)**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팀별 해외문화탐방 공모트랙, 자격증 취득트랙, 외국어성적 향상트랙, 학업성적 향상트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사지도사(Campus life Adviser : CA)제도**는 교수와 학생과의 가교(架橋)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기개발활동에 충실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 · 학업 · 진로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 프로그램(StarT Program)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학생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관리해 주고 적립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스타트랙 프로그램(StarTrack Program)

『StarTrack Program』은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 소수정예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준비를 위한 트랙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트랙의 종류에는 공무원시험준비트랙, 교원임용고사준비트랙, 실무형 교육트랙, 기초학습능력 향상트랙 등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활용하여 시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합격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87개 팀 운영 중).

• 트랙의 종류 및 구성
- 공무원시험준비트랙 : 7 · 9급공무원준비팀, 경찰공무원준비팀
- 교원임용고사준비트랙 : 수학교육, 영어교육, 국어교육, 한문교육 및 가정교육교원 준비팀
- 실무형교육트랙 : 외국어교육, 자격증취득교육, 창업교육, 기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 기초학습능력향상트랙 : 학업 수준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

스타네트 프로젝트(StarNet Project)

『StarNet Project』란 각 전공별로 기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공과 산업체 임원으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며,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약 50개 전공과 600여 개 업체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산학멘토링제, 기업계약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개인경력관리(PCM: Personal Career Management) 프로그램

학년별, 개인별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교수, 학사지도사(CA), 진로전문가가 학생과 1:1로 매주 1회씩 상담을 통하여 진로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 실행계획 등을 점검 ·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PCM 매트릭스(Matrix)에 따라 자신의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나가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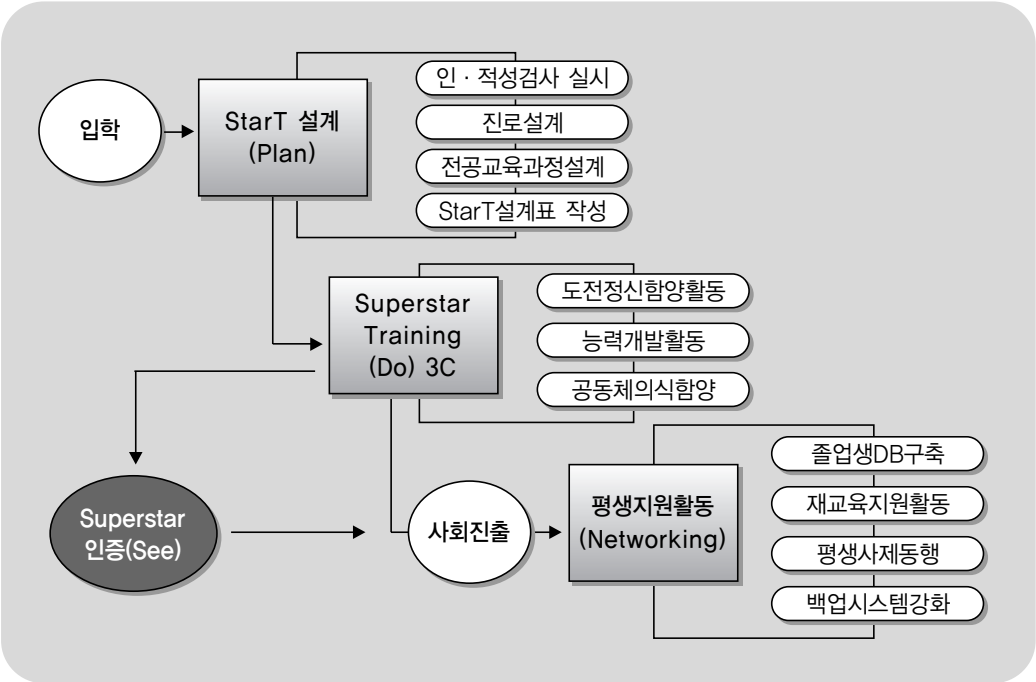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진로탐색 교과목운영
- 급변하는 기업채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의식 고취 및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양,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 최초로 2006학년부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직업탐색 및 진로설계지도(8학기 이수 전공필수과목 지정)

• LCB(Leadership Communication & Business mind) 교과목운영
-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40여 강좌운영

• 여대생을 위한 「여성과 진로」, 「여성비즈니스스킬」 교과목운영

• 유망직종 직업강좌 및 각종 자격증 취득반운영
-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자격증반(컴퓨터 활용, OA 등), TOEIC/TOEFL반, 직업상담과정, 서비스강사양성과정,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레크리에이션 & 웃음치료사과정 등 운영



[스타트 프로그램(StarT Program) 체계도]

•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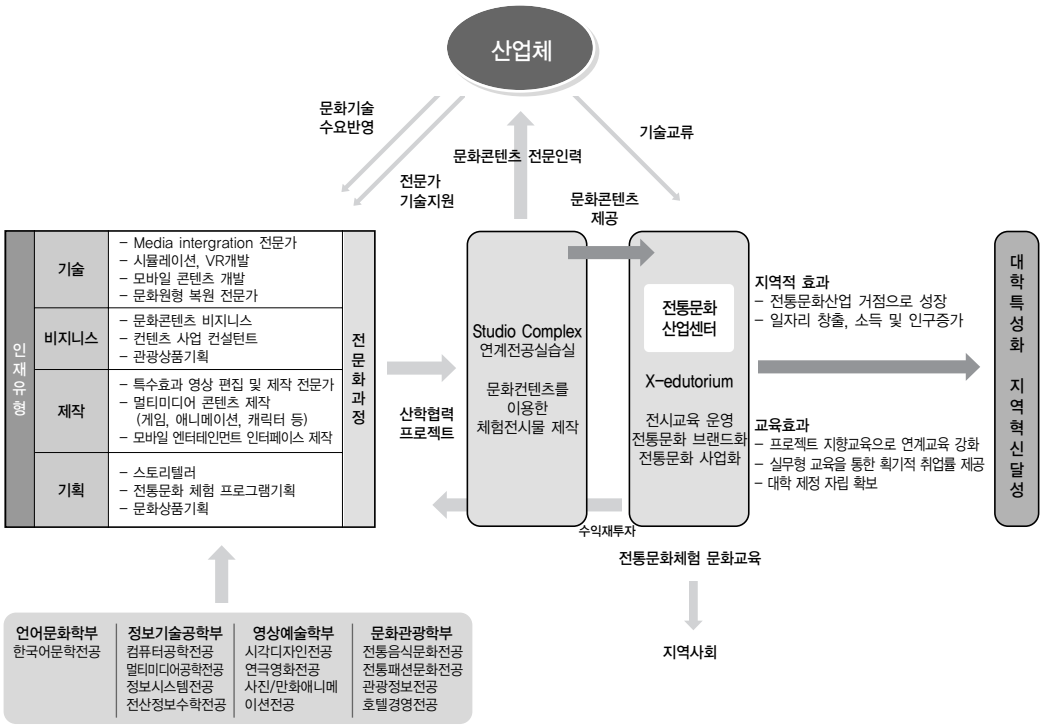
-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분석하여 서류작성법 지도, 비디오코칭 면접훈련프로그램, 면접이미지메이킹, 면접동영상파일을 제작하여 기업체에 배부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에 기여

• 각종 적성검사 실시

- 성격검사, 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학습유형검사 등을 실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대형과제 선정
– 5년 간 250억 원 정부지원 –

『누리(NURI)』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2004년 전국 25개 대학을 선정하여 향후 5년 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전주대는 대형사업이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341억 원으로 국가지원이 250억 원에 이른다. 〈전통문화컨텐츠 X-edu〉란 이 사업의 프로젝트로, 다학문적 통합교양교육과정, 기획 · 제작 · 기술 · 비즈니스가 연계된 전문화교육과정 개발운영, X-edu Studio Complex 및 X-edutorium 구축을 통해 프로젝트 지향적 실무 능력배양, 전통문화원형의 발굴과 디지털 복원을 통하여 전통문화콘텐츠를 기획 · 제작해 이를 바탕으로 X-edu를 운영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이게 하는 고수익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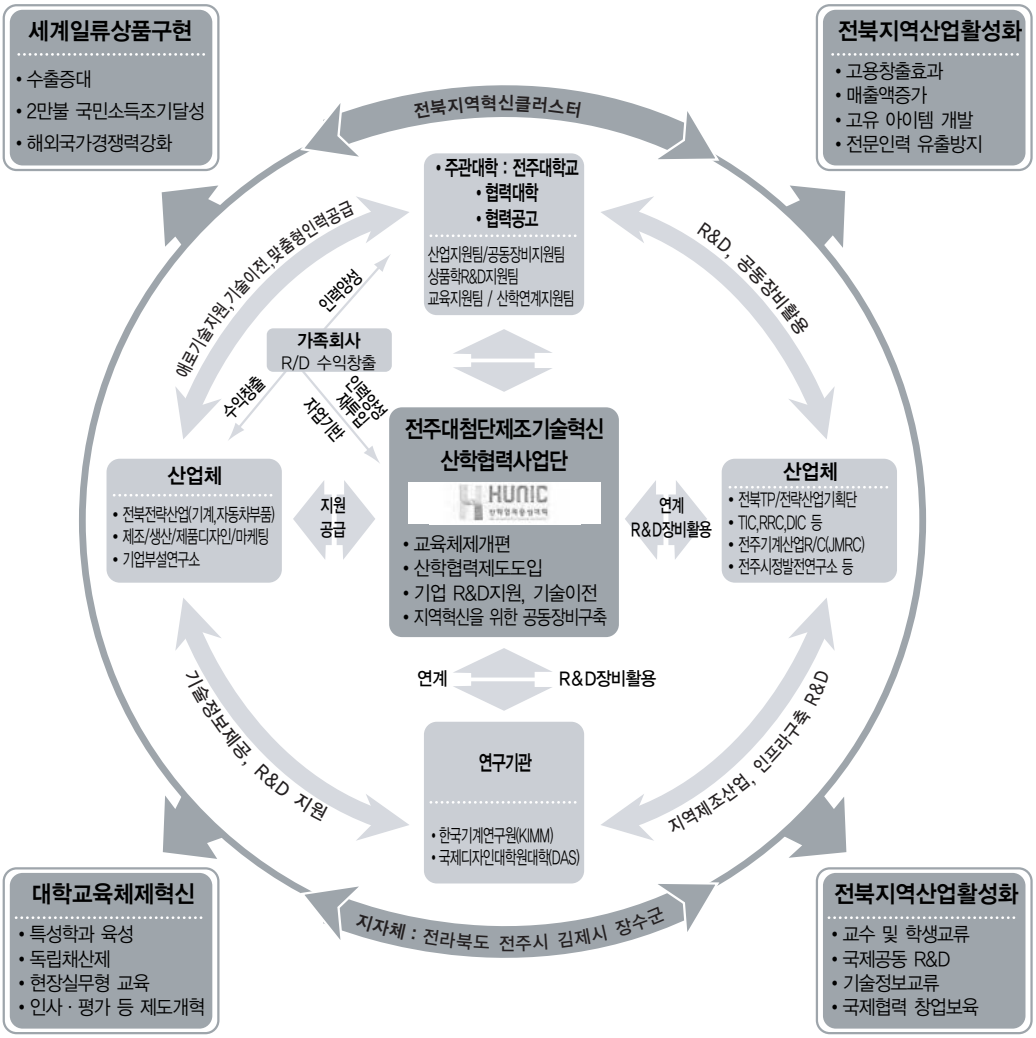


전북 유일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

- 5년 간 350억 원 규모 정부지원 -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과대학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전주대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전주대는 "첨단제조기술혁신(HUNIC)"을 과제로 5년 간 350억 원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HUNIC사업단 주관으로 지역전략산업인 기계 · 자동차부품산업에 필요한 첨단제조기술분야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상품화 · 사업화 중심의 R&D,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용장비 구축 및 국제산학협력과 R&D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성화학과(전공) 육성, 산학인력교류, Capstone-Design, 공학교육인증 추진, JJ-Star Training, 가족회사제(산학협력 체결기업) 도입, 산학협력협의회, 현장실습학점제, 인턴십 프로그램, JJ-Techno Festa, 기술개발과제, 기

[HUNIC사업단]



술이전, 기술지도, 특허출원, BS(Business Support), 산업계 지원 공용장비 지원센터 설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교양 교과목운영

고등교육은 전문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교양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양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회 전반을 이해시키며, 시민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비전임교수의 의존율을 낮추고, 교양과목의 내실화와 적정 규모화를

꾀하였다. 전주대의 통합교양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3시간 분량으로 압축해서 제공하는 교과목으로 현대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언어 · 인문, 사회과학, 예술 · 문화, 자연 · 공학 등 4개 트랙으로 구분해 1트랙당 14개 주제를 14명의 교수가 팀티칭으로 교육한다(4트랙×14분반=56개 교과목). 시험은 객관식 문제와 간단한 읽기숙제(Reading Assignment)를 병행해서 치르고, 평가는 상대평가를 도입하였다. 교과목 설강은 공모를 통해 결정하고, 현대사회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시사성이 강한 주제어를 교과목의 내용으로 삼는다. 영역별 강의주제로는 언어 · 인문(7개 주제), 사회과학(13개 주제), 예술문화(13개 주제), 자연 · 공학(14개 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M 연구개발단운영

– 친환경 농 · 축 · 수산업 우리가 책임진다 –

EM 연구개발단은 2001년 설립되어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통해 EM 유기농업, EM 양식업, EM 축산업, EM에 의한 물의 정화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EM 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이다. 최근 FTA체결로 인하여 농 · 축 · 수산업의 환경이 위축되고, 새만금사업, 용담댐사업 등으로 환경오염과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있어 EM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대학육성사업 추진대학으로 선정되어 보다 체계적 · 과학적으로 EM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2003년도에는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M 연구개발단은 연구 · 교육사업(EM 기초 및 응용연구, EM 학부운영, EM 연구소 및 교육원운영)의 성실한 수행을 토대로 시범사업(EM 인식화사업, 홍보사업, EM 기술데이터 구축 등)을 펼치며,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상담 · 컨설팅(농 · 축 · 수산업 지원사업, 지역환경보전사업, 지자체 컨설팅사업 등)사업을 전개하고, 나아가 EM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확보한 후, 보다 많은 재원을 연구 ·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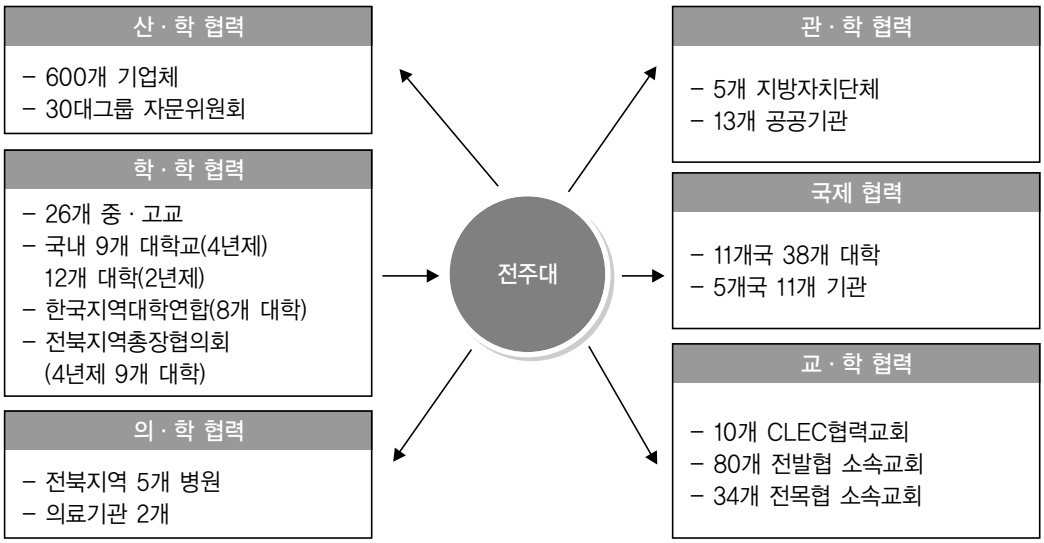
국제교류 및 협력

[재외국인한국문화체험]

전주대는 17개 국 64개 자매대학, 6개 국 12개 자매기관과 협력협약을 맺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교환프로그램, 외국 대학과의 2+2 복수학위제도 시행, 미국 1개 학기 해외 현장학습 실시, 단기 해외 어학연수 실시(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연수 프로그램 실시, 해외 자매대학과의 온라인 강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실시 등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네트 프로그램의 6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26개 중고교, 5개 의료기관 등 대외협력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2003년 이남식 총장 취임 이후 1,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주대의 경우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최근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보면 학생회관을 비롯한 전 교사의 리모델링에 150억 원, EM 연구동 신축을 비롯한 스타센터, 스타타워 등 각종 건물 신축에 645억 원, 기타 기자재 구입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교육재원을 투입하였다.

[스타센터]

[스타타워조감도]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

총장 이 남 식

우리 전주대는 지역혁신의 중심대학으로써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변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역시 "창의적인 인재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크리에이티빙(creativing)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훌륭한 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의 확충, 제반 교육여건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리더십(leadership)을 기르고, 지식(knowledge)을 습득하며 학습의욕을 돋우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혁신을 위하여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레노바레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창출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육은 고등교육보다는 일반교육으로써 강의(teaching) 중심에서 학습(learning)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급감하고 평생학습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에 어떻게 접근하고 획득하고, 소화하여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인 시대를 지나 '아는 것이 돈이고 부가가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빙(creativing)과 함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능력은 의사표현의 기본이며, 리더십과 수행능력으로 연결되는 근간입니다. 이와 함께 인류에 헌신(commitment)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학이나 인문학을 배우고, 국어와 한자, 또한 글로벌 시대를 위한 외국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지식기반센터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되고, 이 지역의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이 잘 살게 되어야 지역대학이 활로를 열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 하에 우리는 지역의 일을 대학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프로그램 등 전국 최고의 학사제도, 품격 있는 교육시설, 84.6%라는 높은 취업률, 학생들이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상담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정성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